# 『新羅之記録』의 구상과 변경의 심성*

이세연**

〈차 례〉

1. 머리말
2. 두 가지 혈맥과 변경의 귀종(貴種)
3. 경계인의 자타인식
4. 실용과 생존의 '弓馬之道'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홋카이도의 기기(記紀)'라고 불리는 『新羅之記録』의 구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쓰마에(松前) 가문의 자타인식

*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5). 본 논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지적사항은 대체로 수용하여 본문에 반영했지만, 필자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정하지 못하거나 손질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을 밝혀둔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4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부분에서는 '윤리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논문제목에는 '심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 '심성'이라는 용어가 3장과 4장의 키워드인 '자타인식'과 '윤리의식'을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각주 51)은 고려대 배관문 선생님의 비판에 자극받아 덧붙인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과 윤리의식을 고찰한 논고이다.

『新羅之記録』의 저자는 마쓰마에 가문의 혈맥이 천황가와 연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강조함으로써 동 가문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마쓰마에 가문의 선조로 상정된 '新羅三郎'=미나모토노 요시미쓰(源義光) 이래의 계보는 물론, 미나모토 가문의 씨신(氏神)으로 추앙받던 하치만 대보살(八幡大菩薩)의 기원까지 상세히 해설하는 등, 『新羅之記録』은 마쓰마에 가문이 일본열도의 중앙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新羅之記録』이 북방세계 고유의 계보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마쓰마에 가문의 직접적인 선조인 노부히로(信広)를 중세 북방세계의 패자 안도(安東) 가문의 사위로 설정함으로써, 마쓰마에 가문을 중앙권력뿐만 아니라 지역권력의 고귀한 혈맥도 수렴한 변경의 실력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두 가지 혈맥의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쓰마에 가문의 시선은 중앙과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마쓰마에 가문은 애초에 '문명' 세계와 '야만' 세계에 걸쳐 있는 경계인이었다.

『新羅之記録』에서 마쓰마에는 '부상국', '화국', '히노모토' 등으로 불린 일본과는 격절된 독자적인 세계로 설정되었다. 단, 마쓰마에와 일본이 대등한 관계로 인지된 것은 아니었다. 마쓰마에 가문의 입장에서 일본은 '풍아'함을 지닌 '문명' 세계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에 반해 마쓰마에 가문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해야 했던 에조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교류해야 하는 상대, 위태로운 공존의 상대로 인지되었다.

한편 위태로운 변경에서 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존재였던 만큼, 마쓰마에 가문의 사람들이 생각한 '弓馬之道', 즉 무사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실용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에조와의 전투에서 구사된 기만전술은 거리낌 없이 기록

에 남았으며, 전투의 추이를 살펴가며 거취를 결정하는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행위는 다름 아닌 '궁마지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주제어: 新羅之記錄, 마쓰마에 가문, 귀종, 경계인, 弓馬之道

## 1. 머리말

일본 아오모리현(青森県)과 러시아 사할린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섬이 홋카이도(北海道)로 명명된 것은 1869년의 일이다. 오랜 기간 에조가치시마(蝦夷が千島), 에조노시마(狄之嶋) 등으로 불린 이 섬의 전역이 애초부터 일본의 경역으로 인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1600년을 전후하여 일본열도의 중심에 통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우선 섬 남단의 오시마(渡島) 반도[1]가 일본의 한 부분으로 인지되어 정치·경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흐름이 18세기 말 러시아와의 접촉을 거치며 한층 강화되어 메이지유신기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마침내 섬 전역이 일본의 영토로 포괄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중심에 의한 주변부의 점진적 통합과정에서 늘 사이에 끼어 있던 존재가 오시마 반도로부터 세력을 키워나간 마쓰마에번(松前藩)의 영주 마쓰마에 가문이었다. '渡党' 계열의 에조(蝦夷)[2]

---

1) 머리말 말미의 지도들을 참조. 이하 주요 지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참조할 것.

2) 일본열도의 동북지역 북부와 홋카이도에 거주하던 선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세부터 사용되었는데, 고대에 통용된 '에미시(蝦夷)'와는 달리 차별용어였다. 따라서 표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검토대상인 『新羅之記錄』에서 선주민을 거의 일관되게 '에조'라 표기하고 있는 점(일부 '우타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감안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출신으로도 일컬어지는 마쓰마에 가문[3]은 애초에 두 개의 문턱을 마주하고 있던 경계인이었다. 마쓰마에 가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쓰가루(津軽) 해협 건너편에는 '문명' 세계가, 배후의 사할린 방면으로는 '야만'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간에이(寛永) 연간(1624-1645)에 접어들어 통합을 추구하는 중앙권력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지는 가운데,[4] 마쓰마에 가문에서는 『新羅之記録』이라는 이름의 연대기가 만들어졌다. 급격한 시대전환에 즈음하여 마쓰마에 가문 내에서는 역사를 회고하고자 하는 기운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에서는 『新羅之記録』의 구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혁의 시대에 변경을 살아간 마쓰마에 가문의 자타인식과 윤리의식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검토대상으로 삼는 『新羅之記録』은 일반 독자들에게 낯선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우선 『新羅之記録』의 서지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연구동향과 본 논문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新羅之記録』은 흔히 '홋카이도의 기기(記紀)'[5]라고 불린다. 기

---

자 한다. 또 표기의 번거로움,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하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3) 1356년에 성립한 『諏訪大明神繪詞』(『續群書類從』 第3輯ノ下 수록)에 따르면 에조가치시마(蝦夷が千島)에는 '日の本', '唐子', '渡党'이라는 세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중 '日の本'와 '唐子'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류(異類)이지만, '渡党'은 에조가치시마와 혼슈(本州) 북단을 오가며 교역을 하고 말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학계 일반에서는 마쓰마에 가문을 포함하여 15세기 중엽 이후 홋카이도 남단에 정착한 영주들을 '渡党' 계열로 파악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남단을 기준으로 '日の本'는 섬의 동북면 쪽에 분포한 집단, '唐子'는 섬의 서북면 쪽에 분포한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菊池勇夫, 『蝦夷島と北方世界』, 吉川弘文館, 2003, pp.48-50을 참조.

4) 예컨대, 1633년 막부는 순견사(巡見使)를 파견하여 마쓰마에번의 경역을 점검했으며, 1643년에는 마쓰마에 가문의 가계도 제출을 요구했다.

기, 즉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기나이(畿內)를 중심으로 일본고대국가 성립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면, 『新羅之記録』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마쓰마에번 성립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新羅之記録』이 홋카이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최초의 문헌사료라는 점도 '홋카이도의 기기'라는 표현이 통용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1646년에 성립한 『新羅之記録』이 후대의 편찬사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홋카이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新羅之記録』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新羅之記録』은 마쓰마에번의 1대 번주 마쓰마에 요시히로(慶広)의 6남 가게히로(景広)[6]에 의해 저술되었다.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가게히로는 1643년 막부에 진상된 마쓰마에 가계도[7]의 오류를 바로잡고 에도막부의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에 대한 다다히로(忠広, 요시히로의 차남)의 충성 등 '代々名誉奇特之事'를 진술하고자 했다고 한다. 1646년 당시 요시히로(慶広) 직계의 인물들이 대부분 서거하고 일부가 혼슈(本州)의 다른 가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약관의 우지히로(氏広)가 번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게히로는 가문의 중진으로서

---

5) 北海道編, 『新北海道史』 第七巻 史料一, 北海道, 1969, p.3; 大庭幸生, 「『新羅之記録』寫本の系統とその比較」, 『北海道立文書館研究紀要』 2, 1987, p.57; 新藤透, 『北海道戰國史と松前氏』, 洋泉社, 2016, pp.69-70 참조. 텍스트 고유의 문양과 맥락을 중시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에 비춰볼 때, '기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머리말 말미의 가계도를 참조.

7) 『松前家譜』(마쓰마에정사[松前町史] 자료실 소장)로 통칭되는 가계도가 그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막부에 진상된 마쓰마에 가계도는 일부 손질되어 『寛永諸家系図伝』에 「松前系図」로 수록되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小宮木代良, 「近世前期領主權力の系譜認識: 寛永諸家系図伝の作成過程から」, 『境界のアイデンティティ』, 岩田書院, 2008; 新藤透, 『松前景廣『新羅之記録』の史料的研究』, 思文閣出版, 2009, 第二編 第三章-第五章.

모종의 사명감 하에 마쓰마에번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640년대 당시 가문의 적통이 독점하던 '마쓰마에'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게히로는 가문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많은 매 사육장을 관리하며 혼슈의 아키타(秋田) 가문과 활발하게 거래하는 면모를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도 일정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가게히로는 1643년에 출가하여 『新羅之記録』집필 당시에는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8]

'新羅之記録'이라는 명칭은 일본 천태종 사문파(寺門派)의 시조 엔친(円珍)이 온조사(園城寺)의 수호신으로 받든 '新羅大明神'에서 비롯되었다.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858년 중국에서 구법 활동을 마친 엔친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해상에서 기괴한 노인의 형상으로 뱃전에 나타난 '新羅国之神'과 조우한다. '新羅国之神'은 이내 사라지지만, 엔친의 온조사 중흥과정에서 다시금 출현하여 마침내 이절의 수호신 '新羅大明神'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유력 무사가문인 세이와 겐지(清和源氏)가 온조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특히 미나모토노 요리요시(源頼義)의 3남 요시미쓰(義光)는 '大明神'의 '氏子'가 되어 '新羅三郎'라 불리게 되었다. 마쓰마에 가문은 '新羅三郎'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자임했던 바, 마쓰마에번 성립의 역사는 '新羅之記録'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新羅之記録』은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9] '新羅大明神'의 유래 등을 서술하는 상권 첫머리와 『新羅之記録』의 저술

8) 이상 가게히로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고를 참조. 須藤隆仙, 「松前景廣 本道初の史書を編纂した信心家」, 『北海道と宗教人』, 教學研究會, 1965, pp. 67-69; 海保嶺夫, 『近世蝦夷地成立史の研究』, 三一書房, 1984, pp.246-248.

9) 전체적인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동기 등을 밝히는 상권 및 하권 말미를 제외하면, 대체로 가키자키(蠣崎)/마쓰마에 가문 역대 가독[10]의 사적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상권에서 노부히로(信広)~스에히로(季広) 시대를, 하권에서 요시히로(慶広)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분량 면에서 보자면, 『新羅之記録』은 '근현대사'에 방점을 찍은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新羅之記録』은 홋카이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최초의 문헌사료이다. 따라서 오늘날 홋카이도의 역사를 다루는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新羅之記録』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세 홋카이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선도해온 가이호 미네오(海保嶺夫)는 『新羅之記録』 등 후대의 편찬물과 계보를 사료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찍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주어진 조건이 이것밖에 없다면 공연히 '실증할 수 없다'며 탄식하는 데 그치지 말고 …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을까".[11] 즉, 사료비판을 전제로 『新羅之記録』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했던 것이다. 가이호의 주장은 『新羅之記録』을 대하는 대다수 연구자들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연구동향에 연동하여 『新羅之記録』 자체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고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기초 작업이라 할 수

10) 노부히로(信廣)가 스에시게(季繁)의 뒤를 이어 가키자키(蠣崎) 가문을 계승한 이래로 노부히로의 후손들은 가키자키 성을 사용했다. 마쓰마에 성은 요시히로(慶廣) 시대인 1599년에 채용된 것이다. 이 개성(改姓)에 대해 가이호 미네오는 다음과 같은 마쓰마에 가문의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자신이 마쓰마에 전역의 지배자라는 사실, 가키자키 성을 예전처럼 사용하는 일족을 포함하여 여타 영주들과 자신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海保嶺夫, 『幕藩制國家と北海道』, 三一書房, 1978, p.56 참조.

11) 海保嶺夫, 앞의 책, p.39.

있는 서지학적 연구는 오바 유키오(大庭幸生),[12] 신도 도루(新藤透)[13]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홋카이도 남서쪽 바다에 위치한 오쿠시리(奥尻) 섬의 오쿠시리 마쓰마에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新羅之記録』원본을 바탕으로 서너 가지 계통의 사본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신도 도루와 구도 다이스케(工藤大輔)는『新羅之記録』과 그 주변 편찬물들의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 상세히 논급했으며,[14] 최근 기무라 히로토시(木村裕俊)는『新羅之記録』의 현대어 역주본을 출간하여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15]

한편 본 논문의 관심사인 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예컨대, 구도 다이스케는『新羅之記録』에 보이는 '夷'·'狄' 등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추구하여 북방세계 고유의 방위·지리감각을 규명했다.[16] 구도에 따르면『新羅之記録』에서 '夷'는 마쓰마에 동쪽의 에조를, '狄'는 마쓰마에 서쪽의 에조를 가리킨다고 한다. 한편 이루마다 노부오(入間田宣夫)는 중세 동북지역의 계보의식에 대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新羅之記録』을 검토하여 마쓰마에 가문의 계보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규명하고자 했다.[17] 그에 따르면

12) 大庭幸生, 앞의 논문.

13) 新藤透, 앞의 책. 기초적인 서지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高倉新一郎,『北海道史の歴史: 主要文獻とその著者たち(改訂版)』, みやま書房, 1964, pp.1-5.

14) 新藤透, 앞의 책; 工藤大輔,「15・16世紀の蝦夷蜂起記事について」,『環オホーツク』第三回環オホーツク海文化のつどい報告書, 1996; 同,「下國氏と松前氏: 系譜編纂における一つの可能性」,『中央大學大學院研究年報(文學研究科篇)』26, 1997; 同,「松前廣長と『新羅之記錄』『福山秘府』」,『近世日本の言說と「知」: 地域社會の変容をめぐる思想と意識』, 清文堂, 2013.

15) 木村裕俊,『新羅之記錄【現代語譯】』, 無明舍出版, 2013.

16) 工藤大輔,「『新羅之記錄』における「夷」「狄」表記について」,『中央史學』19, 1996.

17) 入間田宣夫,「北方海域の戰國史」,『北の平泉、南の琉球』, 中央公論新社, 2002; 同,「中世奥羽における系譜認識の形成と在地社會」,『境界のアイデ

마쓰마에 가문은 '新羅三郎'로 상징되는 일본과의 연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異域'으로서의 에조노시마의 성격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18]

이상으로 『新羅之記錄』에 관한 선행연구를 일별해 보았는데, 서지학적 연구를 제외하면, 텍스트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마쓰마에 가문의 심성에 대한 구도와 이루마다의 주장은 관심 사안에 대한 단락적인 논급에 그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도가 주장한 북방세계 고유의 감각, 혹은 이루마다가 주장한 통합에의 의지가 당대의 마쓰마에 가문을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이라면, 그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新羅之記錄』 전반에 아로새겨져 있을 터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홋카이도의 기기'라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연구사상의 공백은 의외로도 여겨진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新羅之記錄』의 구상과 짜임새, 구체적인 서술내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마쓰마에 가문의 자타인식과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한국 학계에 변경사(border history)가 소개된 지도 10년이 넘었다.[19] 그러나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현실을 구체적인 검토대상으로 삼은 연구, 특히 전근대사를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20] 동북공정이 종료된 이상 변경사의 유통

---

ンティティ』, 岩田書院, 2008, pp.101-106.

18) 『新羅之記錄』의 활용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구도와 이루마다의 연구를 제외하면 17세기 전기를 검토대상으로 삼아 마쓰마에 가문의 심성을 심도 있게 다룬 선행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2004.

20) 국내 연구자들이 발간한 몇 가지 관련 단행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

기한은 지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일국사적 역사서술과 이를 떠받치는 유럽/근대중심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변경사는 부단히 호출되어 마땅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변경사를 탐색하는 시도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본문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新羅之記錄』의 핵심 구상이었던 계보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루마다의 지적처럼 마쓰마에 가문의 사람들이 중앙권력으로 수렴되는 혈맥에만 관심을 보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마쓰마에 가문의 자타인식을 일별하고, 4장에서는 그들이 변경의 무사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추출해 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新北海道史』 수록본[21]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인용문의 원문은 각주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

사재단, 2009; 김선민・윤욱・조성산・홍윤희, 『동아시아의 근대, 그 중심과 주변』, 소명출판, 201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엮음, 『러시아제국의 변경에서』, 민속원, 2015; 최덕규,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변경연구』, 경인문화사, 2016;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제국과 변경』, 혜안,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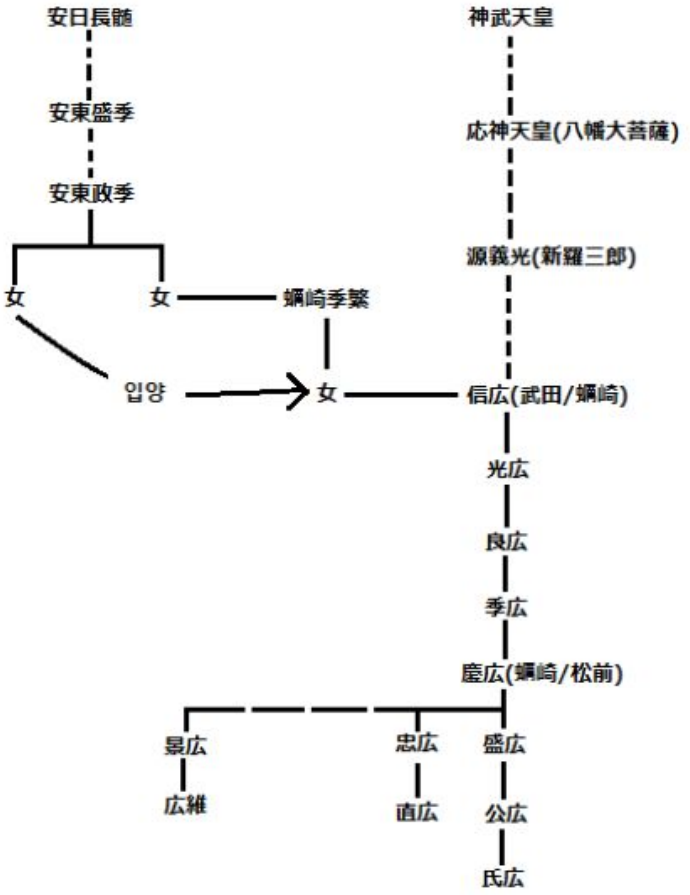
21) 『新羅之記錄』(北海道編, 『新北海道史』 第七卷 史料一, 北海道, 1969 수록).


アムール川
사할린
大興安嶺山脈
シホテ・アリン山脈
哈爾浜
択捉島
国後島
札幌
ウラジオストク
瀋陽
오시마
반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동해
平壌
ソウル
仙台
독도
日本
아오모리현
大韓民国
黄海
東京
釜山
大阪
福岡
伊豆諸島
가마쿠라
上海
와카사
薩南諸島
奄美大島
福州
琉球諸島
小笠原諸島
尖閣諸島
硫黄島
石垣島
台湾

〈주요 관련지역 지도〉




〈중세 후기-근세 초기 일본열도의 북쪽 변경지대 관련 지도〉




〈『新羅之記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키자키/마쓰마에 가계도〉

## 2. 두 가지 혈맥과 변경의 귀종(貴種)

『新羅之記録』은 하치만 대보살(八幡大菩薩)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책 제목을 감안하면 일견 생뚱맞은 도입으로도 보이지만, 이것은 마쓰마에 가문의 계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마쓰마에 가문은 '新羅三郎' 미나모토노 요시미쓰를 선조로 간주했는데, 하치만은 바로 미나모토 가문의 조상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치만에 관한 『新羅之記録』의 기술에도 "천황의 명령으로 사당을 세우고 이와시미즈(岩清水) 하치만 대보살을 숭경했다. 미나모토 가문의 씨신(氏神)이 되셨다"(5면)[22]는 문장이 보인다. 혈맥을 기준으로 한 『新羅之記録』의 정의에서도 "진무(神武) 천황…오진(応神) 천황 하치만 대보살…세이와(清和) 천황…요시미쓰…노부히로 아손(信広朝臣) 이래 대대의 연보 및 명예 기특의 기록"(12면)이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마쓰마에 가문이 천황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귀한 혈통='귀종'이라는 점이 확인된 후 역대 가독들의 사적이 기술되기 시작한다. 그 첫머리에 등장하는 노부히로는 '鎮狄大将武田彦三郎若狭守新羅氏信広朝臣'이라는 긴 호칭으로 소개된다(12면). 이 호칭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노부히로는 '鎮狄大将'[23]

22) 면수는 『新北海道史』 第七巻 史料一의 면수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함.

23) 나라시대에는 데와(出羽) 방면의 에미시를 진압하기 위해 실제로 '鎮狄將軍'이 임명된 적이 있지만(『續日本紀』 724년 5월 임오조), 여기에 보이는 '鎮狄大將'은 이것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新羅之記錄』에 따르면 노부히로는 1457년에 발생한 에조(夷狄)들의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여 무명을 떨쳤다고 한다. '鎮狄大將'이라는 호칭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저자는 〈노부히로=에조들을 제압한 실력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호칭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조정이 노부히로를 '鎮狄大將'에 임명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 '武田彦三郎若狭守'이며 '新羅氏'라고 수식되고 있는 것이다.

계보의식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武田彦三郎若狭守'라는 표현이다. 이 호칭이 뒤이어 등장하는 '新羅氏'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新羅三郎' 요시미쓰의 후손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3남 요시키요(義清)가 다케다(武田)를 칭했고 이후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노부시게(信繁)가 와카사(若狭), 즉 오늘날의 후쿠이현(福井縣) 남부지역에 기반을 마련하여 그 후손이 현지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新羅之記録』의 저자는 설명한다(10-12면). 저자에 따르면 마쓰마에 가문의 선조인 노부히로도 그 후손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한다.

위의 호칭 가운데 '若狭守'라는 표현은 노부히로가 와카사를 기반으로 하는 다케다 가문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新羅之記録』 전반에 걸쳐 저자는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마쓰마에와 와카사를 연결시키고 있다. 우선 노부히로의 뒤를 잇는 가독에 대해 '新三郎民部大輔若狭守良広朝臣', '彦太郎若狭守季広朝臣'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부히로를 포함하여 가키자키/마쓰마에 가문의 역대 가독들이 실제로 '若狭守'에 임명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新羅之記録』에 삽입되어 있는 "요시히로(慶廣)의 선조 가운데는 이즈노카미(伊豆守)가 많다. 요시히로도 즈슈(豆州)에 임명해야 할 것이다"(48면)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육성을 감안하면, '若狭守'라는 관직은 오히려 저자의 바람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新羅之記録』의 저자는 1548년 여름의 일로 스에히로(季広)가 와카사 다케다 가문의 적자인 노부토요(信豊)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우의를 다졌다고 상세히 설명하고(26-27면), 1589년 모리 히로(盛廣)의 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시히로(慶廣)가 관리하고 있던 마쓰마에 가문의 중요한 문서와 더불어 와카사의 노부토요, 요시쓰나(義統) 부자가 보내온 편지가 모두 소실되었다고 강

조하고 있다(56면). 저자에게 와카사는 마쓰마에 가문의 존립근거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마쓰마에의 승려들이 와카사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반복해서 밝히는 등(21, 26면), 마쓰마에와 와카사 간에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것은 뭐든 적어두는 듯한 저자의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표상으로서의 와카사에 대한 저자의 집착을 감안하면, 그것이 저자 자신의 내면에도 깊숙이 각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1623년 가게히로는 꿈속에서 긴히로(公広)가 사이토(斎藤) 아무개에게 칼 세 자루를 주는 것을 목격한다. 사이토는 그 가운데 '狭衣'라는 이름의 칼을 가게히로에게 건넨다. 가게히로가 '狭衣'라는 이름의 유래를 묻자, 사이토는 '若狭'의 '狭'자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가게히로는 꿈에서 깨어난다(이상 71면). 와카사에 대한 집착이 가게히로로 하여금 이런 꿈마저 꾸게 했던 것일 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꿈 이야기를 굳이 『新羅之記録』에 남기는 태도가 흥미롭다.[24]

이처럼 『新羅之記録』에서 마쓰마에 가문은 와카사에 깊은 인연을 지닌 혼슈 출신의 '귀종'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에조노시마에 거주하는 여타 주민들에 대한 태도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 옛날에는 이 나라는 위로는 20일 정도, 아래로는 20일 정도 걸리는 크기였다. 마쓰마에의 동쪽은 무카와(陬川), 서쪽은 요이치(與依地)까지 인간(人間)이 살았는데,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우대장[25] 요리토

24) 단, 가게히로가 와카사와 관련된 칼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역시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노부히로가 와카사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小藤四郎'이라는 칼이 가게히로에게 전해졌고, 이는 다시 가게히로의 차남인 히로시게(廣維)에게 전해졌다고 한다(72면).

25) 우근위대장의 약칭이다. 요리토모는 1190년 우근위대장에 임명되었으므로, 인용문의 표현은 역사적 사실에는 어긋난다.

> 모(賴朝) 경이 출진하여 오슈(奧州)의 야스히라(泰衡)를 추토하셨을 때, 누카노부(糠部)・쓰가루(津輕)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도망쳐 건너와 거주했다. … 현재 오적(奧狄)의 땅에 그들의 자손이 에조(狄)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한다. … 사네토모(實朝) 쇼군의 시대에 강도・해적의 무리 수십 명을 사로잡아 오슈 소토가하마(外之濱)에 보내고 에조노시마로 추방하셨다. 와타리당(渡党)이라는 것은 그들의 후예이다. 또 그 후 가키쓰(嘉吉) 3년(1443) 시모노쿠니(下國)[26]의 안도 타모리스에(安東太盛季)가 고도마리(小泊)의 시바관(柴舘)에서 몰락하여 바다를 건넜는데, 이후 그를 그리워하여 여러 사람이 와서 살았다. 현재 그 후예인 사무라이들이 이곳에 있다.[27]

위 인용문에서 저자는 에조노시마에 '인간'이 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1189년의 오슈전투 때 가마쿠라(鎌倉) 막부군에 패퇴한 오슈후지와라(奧州藤原) 가문 계열의 사람들이다. 실제로 1189년 당시 수세에 몰린 야스히라는 '夷狄嶋'로 건너가고자 누카노부로 향했다.[28] 야스히라는 도중에 부하 장수에게 참살당하지만, 오슈후지와라 가문의 패잔병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夷狄嶋'로 건너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가마쿠라 막부의 3대 쇼군

---

26) 여기서 '시모노쿠니'는 안도 가문의 적통인 '시모노쿠니' 가문을 가리킨다. 안도 가문은 대략 남북조시대를 전후하여 아키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가미노쿠니(上國) 가문과 쓰가루 등 애초의 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모노쿠니 가문으로 갈라졌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홋카이도에도 가미노쿠니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곳이 혼슈 아키타 지역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27) "往古者, 此國, 上二十日程, 下二十日程. 松前以東者陬川, 西者與依地迄, 人間住事者, 右大將賴朝卿進發而追討奧州之泰衡御節, 從糠部津輕人多逃渡此國居住…於今奧狄之地, 彼末孫爲狄在之…實朝將軍之代, 强盜海賊之從類數十人搦捕, 下遣奧州外之濱, 被追放狄之嶋, 渡黨云者, 渠等末也, 亦其以後, 嘉吉三年冬, 下國安東太盛季落小泊之柴舘渡海之後, 慕跡數人來住, 於今其末孫之侍共在之也"(14면).

28) 『吾妻鏡』 1189년 9월 3일조.

인 사네토모의 시대에 추방된 중범죄자들이다. 실제로 가마쿠라 시대의 중범죄자들 중 일부는 막부를 매개로 소토가하마나 에조노시마로 추방되곤 했다.[29] 셋째, 안도 모리스에와 그 휘하의 사무라이들이다. 안도 모리스에는 도사미나토(十三湊)를 기반으로 중세 북방세계의 패자로 군림했던 안도 가문의 적자이다. 안도 가문은 마쓰마에 가문의 전신인 가키자키 가문의 주군이기도 했다. 1440년대 당시 안도 가문은 신흥 남부(南部) 가문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모리스에는 실제로는 1442년 무렵에 에조노시마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0]

위 인용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가마쿠라 시대에 연원을 두는 '인간' 집단의 철저한 타자화이다. 즉, 오슈전투에서 비롯된 '인간' 집단은 '오적의 땅', 즉 에조노시마의 서북면 안쪽 깊숙한 지역에 거주하는 '에조'의 선조, 사네토모 시대에 에조노시마로 유배된 '인간' 집단은 '와타리당'의 선조라는 식으로 마쓰마에 가문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이질적인 부류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북방세계에 자리잡은 마쓰마에 가문인 만큼 특히 중세 초기에 오슈 전역을 석권하고 에조노시마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오슈후지와라 가문에 대해 모종의 계승의식이 표명되어도 좋을 듯한데, 『新羅之記録』의 필치는 냉철하다.

이 같은 『新羅之記録』의 입장은 오슈후지와라 가문이 일찍이 고대 동북지역의 패자인 아베(安倍) 가문의 뒤를 잇는다는 계보의식을 표명했던 것[31]과 대조를 이룬다. 마쓰마에 가문에 이르러 북방세계의 독자적인 계보의식이 소멸되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32]이

29)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앞의 책, pp.284-285 참조.
30) 入間田宣夫, 「糠部・閉伊・夷が島の海民集団と諸大名」, 『北の内海世界』, 山川出版社, 1999, p.58.
31)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앞의 책, p.270.
32) 入間田宣夫, 「中世奥羽における系譜認識の形成と在地社會」, pp.101-106.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마쓰마에 가문은 북방세계의 독자적인 계보의식에 대해 무감각했을까? 변경을 아우르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천황가로 이어지는 고귀한 혈맥만으로 충분히 담보된다고 인식되었던 것일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新羅之記錄』의 저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실마리는 다름 아닌 위의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다. 『新羅之記錄』의 저자는 에조노시마에 자리잡은 또 다른 '인간' 집단으로 안도 가문 계열의 사람들을 제시했다. 『新羅之記錄』의 저자는 그들이 누구의 선조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안도 모리스에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모리스에 아손의 선조는 타화자재천왕(他化自在天王)의 내신(內臣) 아비나가스네(安日長髓)이다. … 진무(神武) 천황과 나라를 다투었지만, 전투가 불리하여 사로잡혔다. 이름을 추만(醜蠻)이라 고치고 동쪽 오슈의 쓰가루 소토가하마 안도우라(安東浦)에 유배되었다. 아비나가스네의 후손이 쓰가루를 압령하고 도사미나토에 살며 번창했다.[33]

중세일본사회에서는 안도 가문의 선조에 관한 신화가 널리 유포되었다. 그 흔적은 근세에서도 확인되곤 하는데, 위 인용문은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안도 가문의 선조는 천황가의 권위를 상대화할 수 있는 불교계통의 신과 연계되어 있고, 더군다나 "진무 천황과 나라를 다투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아비나가스네는 전투에서 패하여 일본열도의 변경으로 밀려났다고 보이지만, 이 담론의 핵심은 일찍이 천황가와 대등하게 맞섰던 혈맥, 그래서 언제고 중

33) "盛季朝臣, 其先祖者, 他化自在天王之內臣安日長髓‥雖令成神武天皇與國諍, 軍不利被虜, 改其名於醜蠻, 配流東奧津輕外之濱安東浦. 彼安日長髓之末孫押領津輕, 住十三之湊繁昌"(15면).

앙권력을 상대화하고 권토중래를 꿈꿀 수 있는 혈맥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3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新羅之記録』의 저자는 마쓰마에 가문의 혈맥이 천황가로 이어진다고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강조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아비나가스네 신화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텐데, 저자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삽입한 것일까?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도 가문은 본래 가키자키/마쓰마에 가문의 주군에 해당했다. 애초에 에조노시마를 아우르고 있었던 것은 안도 가문이었다. 『新羅之記録』에도 "에조노시마는 옛날 안도 가문의 영지였다"고 명기되어 있다(18면). 마쓰마에 가문은 안도 가문의 명을 받아 오시마 반도 일대에서 교역업무를 담당하던 여러 유력 가문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도 가문은 15세 중엽에 이르러 그 위세가 한풀 꺾였지만, 16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방세계의 패자로서의 권위는 유지하고 있었다.[35]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마쓰마에 가문은 1600년 전후의 통일정권 성립을 계기로 안도 가문의 권좌를 사실상 탈취했다. 『新羅之記録』이 집필되던 당시, 이 같은 탈취의 역사는 에조노시마 지역사회에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다. 에조노시마의 신흥 통치자인 마쓰마에 가문의 입장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이래로 북방세계에서 장기간 존재감을 과시했던 안도 가문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新羅之記録』에 아비나가스네 신화와 안도 가문의 역대 가독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보이는 것은 우선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新羅之記録』의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안도 가문의 권위가 마쓰마에 가문의 통치 정당성에 도움이 된다고도 판단했던

34) 入間田宣夫, 앞의 논문, p.92.
35) 海保嶺夫, 『近世蝦夷地成立史の研究』, p.230.

것 같다. 그것은 마쓰마에 가문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혈맥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 수리대부(修理大夫)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마사스에(政季) 아손의 딸을 자식으로 삼아 노부히로와 혼인하게 하고 강의 북쪽 아마노가와(天川)의 스자키관(洲崎舘)에 머물게 하며 가독으로 받들었다. 노부히로 아손은 실제로는 안도 타 마사스에 아손의 사위이다.[36]

위 인용문의 '수리대부'는 가키자키 스에시게(季繁)이다. 스에시게는 에조노시마 가미노쿠니(上ノ國)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실력자였다. 후사가 없었던 스에시게는 노부히로를 사위로 삼아 가키자키 가문의 대를 잇게 했는데, 노부히로의 혼인상대가 실은 안도 마사스에의 딸이었다는 설명이다.

안도 마사스에는 15세기 중엽 폐절 위기에 처해 있던 안도 가문을 중흥시킨 인물이다. 마사스에의 계보는 불투명하지만, 마사스에가 앞서 언급했던 모리스에 계통의 시모노쿠니 가문의 대를 이은 점만큼은 분명하다. 『新羅之記錄』에서도 마사스에는 1454년 남부 가문의 감시를 피해 에조노시마로 건너가 안도 가문의 지배체제를 다시금 확고히 다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마사스에는 이후 다시 혼슈로 돌아와 아키타의 히야마(檜山)에 웅거하지만, 그가 에조노시마에 구축한 지배체제는 일정기간 동안 존속한다. 노부히로는 1454년의 도해 당시에 마사스에를 수행하여 새로운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말하자면, 마쓰마에 가문의 입장에서 마사스에는 권위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

36) "修理大夫無繼子, 故得政季朝臣之息女爲子, 令嫁信廣, 居川北天河之洲崎之舘, 仰家督. 信廣朝臣, 爲實安東太政季朝臣之聟也"(19면).

그렇다면『新羅之記録』의 저자가 '실제로는'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부히로가 마사스에의 딸과 혼인했다고 강조한 이유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저자는 명백히 북방세계에서 차지하는 안도 가문의 권위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저자는 마쓰마에 가문의 혈맥이 북방세계의 전통적인 '귀종'과도 통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37]『新羅之記録』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1643년의 가계도[38]에 그저 "娶蠣崎修理大夫女. 依継其家, 用蠣崎称号"라고 보이는 점[39]은 저자의 의도를 한층 명확히 밝혀준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언급한 아비나가스네 신화, 안도 가문 역대 가독들의 사적도 저자가 마련한 미장센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新羅之記録』의 저자는 중앙권력과 지역권력의 '고귀한 피'가 마쓰마에 가문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마쓰마에 가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변경의 '귀종'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마쓰마에 가문의 시선이 한곳으로 수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新羅之記録'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 열도의 중앙으로 향하는 시선이 보다 강렬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마쓰마에 가문의 시선은 명백히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은 경계인의 시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선의 흔적은

---

37) 海保嶺夫,『幕藩制國家と北海道』, pp.46-47; 同,『近世蝦夷地成立史の研究』, p.161 참조. 가이호는 이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서술태도를 취하고 있다(아마 이런 서술태도 때문인지 이루마다는 가이호의 지적에 대해 이렇다 할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新羅之記錄』의 구상, 계보의식의 한 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서술, 안도 가문의 신화 및 가독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긴밀히 연결된 담론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8) 각주 7) 참조.

39) 新藤透, 앞의 책, pp.270-271.

『新羅之記録』에 자타인식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경계인의 자타인식

『新羅之記録』에는 신불의 영험에 관한 서술이 많이 눈에 띈다. 상권의 요시히로(良廣) 시대에 관한 단락에도 마쓰마에에 '火難'이 있을 때마다 크게 울려 진동했다는 '勝軍地蔵大菩薩'의 영험담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산에 대해 "마쓰마에의 북쪽에 높은 산이 있다. 이 산에 오르면 멀리 부상국(扶桑国)을 바라볼 수 있다. 경관이 훌륭한 산이다"(25면)라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위 인용문에 보이는 '부상국'은 『扶桑集』, 『扶桑略記』와 같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이안(平安) 시대 이래로 일본을 가리키는 이칭이었다. 『新羅之記録』에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부연설명이 없다. 아마도 저자는 쓰가루 해협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무심코 적어 넣었을 것이다.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는 이 무심한 태도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부상국'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저자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618년 마쓰마에에 잠입한 이탈리아 선교사 안젤리스에게 "신부님이 마쓰마에에 오신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가 신부님을 일본에서 추방했지만, 마쓰마에는 일본국이 아닙니다"[40]라고 했다는 긴히로(公廣)의 발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1593년 요시히로(慶広)는 '奥狄唐渡之嶋'

40) H.チースリク 編, 岡本良知 譯, 『北方探檢記: 元和年間に於ける外國人の蝦夷報告書』, 吉川弘文館, 1962, p.53.

에서 조달한 '唐衣'를 입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접촉했다고 보이는데(44면), 그 같은 만남도 마쓰마에의 '다름'이 가시화되고 재확인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단, 마쓰마에가 일본과 다른 공간이라는 인식은 양자가 대등하다는 인식은 아니었다. 예컨대, 『新羅之記録』에는 양자 간의 문화적 격차에 대한 서술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新羅之記録』 하권의 전반부에는 에조노시마의 관할권을 확보하고자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요시히로(慶広)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1593년 임진전쟁 당시에 요시히로는 규슈 나고야(名護屋)에 출진해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에조노시마 관할권에 관한 명령서를 얻는다. 마쓰마에로 돌아가는 길에 요시히로는 교토에 들러 사토무라 조하(里村紹巴)에게서 렌가(連歌) 지침서를 얻는데, 『新羅之記録』에는 다음과 같은 조하의 지어(識語)가 채록되어 있다.

> 이 지침서는 히노모토(日乃もと)에서 떨어져 있는 마쓰마에의 도주(嶋主) 가키자키 시슈(志州)가 화국(和國)의 풍아(風雅)에 마음을 물들여 렌가의 자리에 종종 섞여…41)

위 인용문에 보이는 '가키자키 시슈'는 아직 가키자키 성을 사용하고 있던 시마노카미(志摩守) 요시히로(慶広)를 가리킨다. 그 전후로 보이는 '히노모토', '화국'은 앞서 살펴본 '부상국'과 같이 일본을 가리키는 이칭이다. 조하는 마쓰마에를 일본과는 격절된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마쓰마에는 일본의 '풍아'에 감화되어 마땅한 대상이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취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인식을 담은 조

41) "此式目者, 日のもとをはなれたる松前の嶋主蠟崎志州, 和國の風雅に心をそめ, 連歌の席にしは／＼ましはりける…"(45면).

하의 지어가 별다른 부가설명 없이 『新羅之記録』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저자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자명한 이야기였던 까닭에 이런저런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저자의 무심함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은 마쓰마에 사람들에게 '문명'의 세계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런 인식은 다음의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09년 조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추문사건에 연루되어 가잔인 다다나가(花山院忠長)가 마쓰마에로 유배되었다.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이 사태에 대해 요시히로(慶廣)는 다음과 같이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 예로부터 지금까지 운객(雲客)이 에조노치시마(狄之千嶋)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 좌천이 아니라면 어찌 올 수 있겠는가? 요시히로의 대에 이르러 운객이 이 나라에 오신 일은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다 … 이는 가문의 명예이다.[42]

마쓰마에에 유배된 다다나가는 당시 종4위상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将)이었다. 요시히로의 말대로 다다나가는 운객, 즉 천황이 머무는 청량전(清涼殿)에 오를 수 있는 전상인(殿上人)이었다. 다다나가가 속한 가잔인 가문은 경우에 따라 최고 관직인 태정대신(太政大臣)에도 오를 수 있는 청화가(清華家)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격에 겨워 '가문의 명예' 운운하는 요시히로의 태도는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성추문사건에서 비롯된 유배를 마치 자랑스러운 자신의 치적인 양 이야기하는 요시히로의 태도, 또 그런 이야기를 고스란히 옮겨 적음으로써 요시히로의 바람대로 이 일을 후세에 전하려

---

42) "從往古, 未聞雲客之狄之千嶋於來給事. 豈是不左遷者, 可爭來矣. 当代慶廣時雲客之來此國御事, 須談伝後世…是家名譽也"(51면).

는 저자의 태도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태도의 근간에는 역시 '문명' 세계로서의 '부상국'·'히노모토'·'화국'에 대한 동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일본과의 접촉은 종종 노래모임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마쓰마에 가문이 일상적으로 접해야 했던 에조가 소환되기도 했다.

> ① 도읍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말할 테지. 4월에 매화가 한창이라면.
> ② 거짓이라고 에조는 말할 테지. 4월에도 매화 향을 바람에 실어 보내면.[43]

위 노래는 앞서 소개한 다다나가가 마쓰마에의 술자리에서 읊은 노래이다. 봄꽃인 매화가 초여름에 만개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노래의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두 노래를 짝지어 놓으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다다나가의 시선은 서로 호응하듯 둘로 갈려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다나가의 시선은 쓰가루 해협 너머 '문명' 세계로 향하는가 하면(①), 마쓰마에 배후의 에조로도 향하고 있다(②). 마쓰마에라는 환경은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레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다다나가의 노래는 마쓰마에 사람들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다다나가의 노래에 등장하는 에조의 모습은 '문명' 세계의 노래모임에서도 확인된다. 『新羅之記録』에 따르면 1591년 요시히로(慶広)는 어느 렌가회에 참석하여 사토무라 조하의 발구(発句)에 노래를 덧붙였다. 즉, 조하가 "봄밤, 에조의 숨 바람이 분다. 하늘의 텅

---

43) "都にて, かたらは人の, いつはりと, いはん卯月の, 梅のさかりを", "いつはりと, ゑそやいはまし, 卯月にも, 梅のにほひを, 風のをくらは"(51-52면).

빈 달"이라고 발구를 제시하자, 요시히로는 "동틀 녘 어디로 돌아가는 기러기인가"라고 읊었던 것이다(42면).

발구에 등장하는 '에조의 숨 바람'에 대해 『新羅之記錄』의 저자는 비교적 상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즉, 14세기 초에 편찬된 『夫木和歌抄』의 관련 노래를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 섬(에조노시마=인용자)에서는 옛날 특히 안개가 짙어 동서의 산이 보이지 않을 때 에조의 숨 바람이 부는 것이라고 여겨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44]

위 인용문은 혼슈에서 바다 건너 에조노시마에 정착한 사람들의 세계, 즉 '인간' 세계의 전승에 다름 아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에조와 대치하며 긴장감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인간'들의 일상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에조가 내쉬는 숨은 자욱한 안개로 변한다, 따라서 안개가 짙게 끼었다는 것은 주변에 에조가 있다는 징후에 다름 아니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아'한 '문명' 세계의 노래 모임에서 '에조의 숨 바람'은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에 불과했지만, 에조노시마 현지인들에게 그것은 사활이 걸린 관찰대상이었음에 틀림없다.

'옛날'이라는 문구에 주의하면 『新羅之記錄』이 집필되던 당시 '에조의 숨 바람'에 대한 현지인들의 집단 환상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에조가 경계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新羅之記錄』의 저자는 1456-1525년에 이르기까지 에조들이 '샤모(者某)' 즉 '인간'들의 마을을 습격했다고 회상하기도 하고(14면), 또 에조가 비 내리는 날 야음을 틈타 마쓰마에 가문의 성곽을 노린 일화들을 소개하기도 한다(23-24면). 마쓰마에 가문에게 에조는

---

44) "此嶋, 古殊更霞深, 而有不見東西之山時, 狄之胡苴吹哉覽云, 令人皆用心也"(42면).

좀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강력한 타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에조노시마, 즉 '에조의 섬'에 거주하는 마쓰마에 가문 사람들은 에조와 일정하게 교류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쓰마에에 머물며 손에 넣으려 한 것은 에조들이 가져오는 해달의 털가죽, 말린 연어, 다시마 등 '부상국'에서 각광받는 북방 물산이었다. 『新羅之記録』에도 마쓰마에 가문과 에조가 상업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은 생생하게 활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문화교류라 할 만한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예컨대, 『新羅之記録』에는 마쓰마에 사람들과 에조가 어우러진 술자리가 종종 보이지만, 주연에 수반되기 마련인 가무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쓰마에 사람들이 '부상국'에서 배운 '풍아'를 에조에게 선보일 법도 한데,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쓰마에 가문과 에조의 교류에서 '풍아'가 점하는 위상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방증할 따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쓰마에 가문에게 에조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교류해야 하는 상대, 위태로운 공존의 상대로 인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 같은 에조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마쓰마에 가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弓馬之道'를 키워드로 삼아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4. 실용과 생존의 '弓馬之道'

『新羅之記録』에서 가키자키/마쓰마에 가문의 가독들은 무가 동량으로서의 덕목을 고루 갖춘 인물들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노부히로는 타고난 '大力強盛'으로 겁을 내지 않는 거친 '気性'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13면). 또 요시히로(良広)는 장년기에 늘 3명이 잡아당겨 만든 강궁을 사용했으며 마쓰마에 가문에 전하는 '秘術'도 체득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25면). 뒤이은 스에히로 역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정도로 빼어난 활 기술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26면), 요시히로(慶広)에 대해서는 신장이 크고 기량이 탁월했을 뿐더러 '強力'하여 3명이 잡아당겨 만든 활을 잘 쐈다는 기술이 덧붙여져 있다(54면). 요시히로의 적장자 모리히로(盛広) 역시 '小兵'임에도 활의 명수였다고 적혀 있다(57면).

이상의 구절들을 읽어가다 보면 무사들의 기량과 덕목을 묘사한『今昔物語集』권제25,『古今著聞集』권제9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新羅之記録』의 저자가 생각하고 있던 무사가 걸어가야 하는 길, 당시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弓馬之道'의 내용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 실마리는 에조와의 전투에 관한 서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동 12년(1515=인용자) 이적(夷賊) 무리가 봉기했다. 6월 22일 미쓰히로(光廣) 아손이 계략을 세워 거택의 객전(客殿)과 대소(臺所)의 문 여러 칸을 떼어 줄로 묶어 두었다. 이적의 추장 쇼야코지 형제와 우타리를 불러들여 하루 종일 술자리를 베풀었다. 그들로 하여금 취흥에 빠지게 하고 보물을 내보였다. 보물을 보며 즐기는 틈을 엿보아 그 사이 수많은 여자들로 하여금 다듬이질을 하게 하여 그 소리를 틈타 무장을 갖춘 후 집안의 문을 묶어둔 줄을 잘라내고 여러 명이 갑자기 객전으로 밀고 들어갔다. 미쓰히로 아손은 칼을 들고 에조의 추장 두 사람을 참살했다. … 뿐만 아니라 우타리 에조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다.[45]

45) "同十二年, 夷賊徒蜂起, 六月廿二日, 光廣朝臣, 以計略居宅之客殿與臺所之

동 2년(1529=인용자) 3월 26일 에조(狄)가 봉기하여 가미노쿠니(上之國) 와키(和喜)의 관을 공격하고자 했다. 때마침 요시히로(良廣) 아손이 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음모의 일환으로 화해하여 수많은 선물을 주었다. 추장 다나사카시라는 에조가 관으로 향하는 고갯길 도중의 평지에서 선물을 받고는 준엄한 표정으로 관 쪽을 올려다보고 득의양양해 하는 순간 야구라(矢倉)에서 활을 쐈다. … 추장이 사살되는 것을 보고 수백의 우타리들이 크게 당황하여 흩어져 도망쳤다. … 에조가 모두 아마노가와(天河)를 건너가고자 분별없이 강 상류를 향해 도망쳐 가는 것을 히시이케(菱池)로 몰아넣고 모두 죽였다.46)

동 5년(1536=인용자) 6월 23일 다리코나라는 에조와 화해하고 친근해져 하루 종일 술자리를 가졌다. 라이쿠니토시(來國俊)47)가 만든 날카로운 칼로 그들 부부를 단칼에 베어 죽였다.48)

위 인용문들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진압의 패턴이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모든 사례에서 기만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가키자키/마쓰마에 가독들의 기량을 감안하면, 이 같은 패턴은 의외로도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마쓰마에 가문에게 에조는 기만전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상대였음에 틀림없다.49)

---

中, 外戶數間, 以繩索置, 招入夷賊之酋長庶野訇峙兄弟幷侑多利, 一日行酒. 令彼等入醉興, 出寶物見之, 窺弄寶物隙, 令此間於數多之女共, 擣碓紛其音, 鎧物具而後, 切索繩家內之戶推(亻+眞+眞), 數人俄亂入客殿. 光廣朝臣, 取太刀斬殺夷之酋長二人…以加侑多利夷不漏一人悉討殺"(22-23면).

46) "同二年三月二十六日, 狄發向欲攻上之國和喜之舘. 折節良廣朝臣舘籠, 將隱謀, 和睦引罷數多之儲. 酋長多那峻云狄, 舘之坂中平地之所而請取儲之物, 仍向上舘之方. 射(忄+呆)悚處於矢倉…狄皆欲渡越天河. 無了簡追込, 指河上逃行於菱池, 悉討殺也"(24면).

47) 가마쿠라 시대의 저명한 도공(刀工).

48) "同五年六月廿三日, 令和睦多離困那云狄, 成得意, 一日行酒. 以來國俊之喬刀, 討渠夫婦於一太刀宛"(25면).

49) 榎森進, 『アイヌ民族の歷史』, 草風館, 2007, pp.145-146; 工藤大輔, 「アイヌ民族との戰いと「北の武士団」」, 『北方社會史の視座 歷史・文化・生活 第1卷』, 淸文堂, 2007, p.44.

에조의 군사적 실력에 대한 이 같은 추정도 중요하지만, 본 논문의 취지에서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조들에 대한 기만전술을 거리낌 없이 기술하는 저자의 태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선조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을 굳이 누누이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가게히로는 기만전술이 마쓰마에라는 환경에서 응당 있을 법한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상대와 일상적으로 마주하며 문자 그대로 생존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세계에서 이른바 페어플레이만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전투 방식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게히로의 상식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요컨대, 가게히로가 생각한 '弓馬之道'는 실용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성격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장도 주목된다.

> 동 16년(1588=인용자) 봄부터 지카스에(愛季)의 적남 도타로 사네스에(東太郎實季)와 종부형제인 미나토(湊)의 야가타(屋形) 시게스에(茂季)의 적남 도쿠로 다카스에(東九郎高季)가 나라를 다투어 전투를 벌였다. 미나토 구로 다카스에는 센보쿠(仙北)의 도자와 구로(戶澤九郎)를 의지하여 미나토로 들어갔다. 사네스에 아손은 유리군(由利郡)의 아코즈(赤宇曾) 치부소보(治部少輔)를 의지하셨다. 이에 역심 있는 자가 있어 다카스에가 전투에서 패하고 몰락하여 센보쿠로 도망쳐 들어가셨다. 사네스에 아손에게 운이 기울어 아키타군(秋田郡)을 수중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도중에 듣고 히야마(檜山)에 도착했다. 이는 모두 요시히로(慶廣) 아손이 유자(猶子)를 버리고 가독을 받든 것이다. 어찌 궁마지도(弓馬之道)를 오로지 하고 무용(武勇)의 의(儀)를 울곧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50]

---

50) "從同十六年春, 愛季之嫡男東太郎實季朝臣與從父兄弟湊之屋形茂季之嫡男東九郎高季, 諍國所合戰. 湊九郎高季憑仙北之戶澤九郎, 被打入湊矣. 實季朝臣賴由利郡赤宇曾治部少輔給. 故有逆心之者, 高季敗軍牢人而被逃入仙北. 聞爲實季朝臣之理運, 秋田郡入手裏事於途中, 參著檜山. 是併, 慶廣朝

1588년 봄부터 안도 가문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가독 사네스에에게 사촌 다카스에가 도전하는 형국이었다. 요시히로(慶廣)는 사네스에를 지지했는데, 이에 대해『新羅之記録』의 저자는 '궁마지도'를 체현한 행동이라고 평하고 있다. 요시히로가 사네스에를 지지하는 과정에 주목해 보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궁마지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사네스에와 다카스에의 패권 다툼은 호각지세였던 것 같다. 다카스에 측의 내부 분열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는데, 밑줄의 문장이 시사하듯 요시히로는 애초에 어느 쪽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요시히로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사네스에의 승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이 기회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시히로의 행동에 대해『新羅之記録』의 저자는 '궁마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 요시히로의 행동은 무사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은 것이었다.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가문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추이를 신중하게 가늠하는 것은 오히려 무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었던 것은 아닐까? 저자가 생각한 '궁마지도'가 실용과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臣捨猶子, 而仰家督. 豈不專弓馬之道, 正武勇之儀矣"(40-41면). 밑줄 문장의 통상적인 번역은 "어찌 궁마지도를 오로지 하고 무용의 의를 올곧게 하지 않는가"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번역에 따른다면 가게히로는 요시히로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한 셈이 된다. 그러나 가게히로가 마쓰마에 가문의 초대 번주이자 부친인 요시히로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新羅之記錄』에 그런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新羅之記錄』이 "일본식 한문으로 가나 혼용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의 소양이 있어도 읽을 수 없고, 게다가 속자, 음차가 많아… 난해한 책이다"라는 선행연구의 지적(高倉新一郎, 앞의 책, p.4)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본문과 같이 번역했다.

저자의 '궁마지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가키자키/마쓰마에 가문이 자신의 주군을 안도에서 도요토미로, 다시 도쿠가와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新羅之記錄』에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납득할 만하다. 설명하기 곤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되었다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주군 갈아타기'는 문제될 것 없다는 저자의 윤리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인용은 생략하지만 『新羅之記錄』에 안도, 도요토미 가문과의 교류가 담담한 어조로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이 역시 저자가 '주군 갈아타기'와 관련하여 도덕적인 부채감에 짓눌리지 않았음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실용과 생존의 '弓馬之道'로 무장한 마쓰마에 가문 사람들에게 무사로서의 체통의 하한선은 상당히 낮았던 것 같다. 예컨대, 『新羅之記錄』 하권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마쓰마에 가문에는 '綱切貞宗'라는 칼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칼은 본래 오다 노부나가가 소유했던 것인데, 어느 해인가 남부 스에카타(南部季賢)에게 하사되었다. 스에카타는 이 칼을 안도 지카스에(安東愛季)에게 바쳤는데, 지카스에는 이후 군공을 세운 마쓰마에 요시히로(慶広)에게 이 칼을 하사했다. '綱切貞宗'는 그 후 요시히로의 아들인 다다히로(忠広)를 거쳐 다시 그 아들인 나오히로(直広)에게 양여되었다. 그런데 다다히로는 1614-15년의 오사카 전투에서 비롯된 빚을 나오히로에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생활이 궁핍해진 나오히로는 자신의 사촌이자 가독인 긴히로(公広)에게 주선을 부탁하여 '綱切貞宗'를 쇼군 히데타다에게 진상하고 황금 70매를 하사받았다(60-61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新羅之記錄』에는 유서 깊은 무구에 관한 서술이 꽤 많이 눈에 띈다. 어떤 전투에서 누가 사용한 것인지, 어떤 무공과 관련된 것인지, 누구에게 대물림되었는지 등 상세

한 내력이 곁들여지곤 한다. 요컨대, 『新羅之記録』의 저자는 유서 깊은 무구를 결코 허투루 여기는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위에서 살펴본 '綱切貞宗' 일화는 일견 생경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유서 깊은 무구를 존중하면서도 유사시에는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이 모순된 듯한 감각이야말로 저자의 정신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無高大名'로서 거친 변경을 살아간 마쓰마에 가문의 '弓馬之道'는 이처럼 색다른 질감을 지닌 것이었다.[51]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新羅之記錄』의 구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17세기의 전환기에 일본열도의 북쪽 변경을 살아간 마쓰마에 가문의 자타인식과 윤리의식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마쓰마에 가문은 중앙과 지역의 두 가지 고귀한 혈맥을 잇고 있다고 자임함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마쓰마에 가문의 시선은 결코 일본열도의 중앙으로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마쓰마에 가문의 사람들은 마쓰마에와 일본은 다른 공간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단, 그것은 양자가 대등하다는 인식

51) 중세 일본사회의 전쟁터에서 기만전술 등이 횡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佐伯眞一, 『戰場の精神史: 武士道という幻影』, NHK出版, 2004 참조). 따라서 4장에서 검토한 마쓰마에 가문의 '궁마지도'를 변경의 심성이라는 맥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문의 내력을 밝히는 텍스트에서 기만전술, 기회주의, '주군 갈아타기'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은 역시 변경의 심성이라는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은 아니었다. 마쓰마에 가문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문명' 세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자 했다. 반면 에조에 대해서는 상업 활동을 위해 부득이 교류해야 하는 대상, 위태로운 공존의 대상이라는 수준의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마쓰마에 가문의 사람들은 생존과 실용의 '궁마지도'라 할 만한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살아간 세계는 오늘날 무사도의 미덕으로 회자되곤 하는 페어플레이 같은 것이 통용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마쓰마에 가문이 의외로 오랜 기간 동안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시기적으로 비약하지만, 예컨대 18세기 중엽 이후 러시아와 접촉하면서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막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마쓰마에번의 태도 역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열도의 북방세계 나아가 변경이라는 공간단위를 전제로 한 비교 검토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新羅之記錄』에 뒤이어 마쓰마에 가문에서 생산된 문헌들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商場知行制'에서 '場所請負制'로의 전환 같은 에조노시마의 정치·경제적 구조 변화[52]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상의 작업은 울퉁불퉁한 '근대'로의 진입과정을 더듬어 가는 작업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여러 빛깔의 변경이 자아냈을 터인 파열음에 관한 후속작업을 다짐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52) 개설적인 내용에 대한 최근의 논고로는 다음을 참조. 谷本晃久, 「近世の蝦夷」, 『岩波講座 日本歷史 第13卷 近世4』, 岩波書店, 2015.

【부록】 『新羅之記錄』의 짜임새

| 구분 | | 테마 | 주요 내용 |
|---|---|---|---|
| 상권 | 前文 | 八幡大菩薩의 기원 | · 宇佐八幡大菩薩의 진좌 |
| | | | · 岩清水八幡大菩薩의 진좌 |
| | | 新羅大明神의 기원 | · 円珍의 출생, 성장과정과 영험담<br>· 円珍의 渡唐 및 新羅大明神과의 조우<br>· 円珍의 三井寺 중흥과 新羅大明神의 진좌 |
| | | 清和源氏의 계보 | · 経基王~頼義에 이르는 혈맥 |
| | | 新羅三郎 義光의 생애 | · 義光가 新羅三郎로 불리게 된 이유<br>· 義光의 後三年 전쟁 참전<br>· 義光의 신앙생활과 죽음 |
| | | 義光 후손들, 武田源氏의 계보 | · 1180년대, 信光의 활약과 甲斐 진출<br>· 14세기, 信繁의 若狭 진출 |
| | | 저자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들 | · 円珍과 河野 가문의 인연<br>· 八幡殿 가문과 新羅殿 가문의 관계<br>· 松前의 위치와 時廣 부자의 新羅大明神 勸請 |
| | | 新羅之記錄에 이르는 혈맥 | · 혈맥을 기준으로 한 新羅之記錄의 명칭 |
| | 信廣 | 信廣의 혈맥 | · 信廣의 혈맥 |
| | | 信廣의 기질과 渡海 | · 信廣의 기질과 出國<br>· 安東太政季와의 만남과 渡海<br>· 蠣崎季繁과의 만남과 河南 花澤居舘 정착 |
| | | 狄之嶋에 사람이 살게 된 경위 | · 狄之嶋의 크기<br>· 오슈전투와 오슈인들의 도해<br>· 사네토모 쇼군 시대의 유형<br>· 15세기의 도해 집단<br>· 夷狄의 봉기(1456-1525)와 和人 거주지역의 한정 |
| | | 安日盛季의 선조와 渡海의 경위 | · 安日盛季의 선조<br>· 南部義政의 十三之湊 침탈과 盛季의 피난 |
| | | 安日 惣領家의 단절 | · 盛季, 康季, 義季 삼대의 불운 |
| | | 安東太政季의 가독 승계와 渡海 | · 政季의 성장과정과 가독 승계<br>· 1454년, 蠣崎武田若狭守信廣朝臣 등과 渡海 |
| | | 檜山之屋形의 탄생 | · 1456년, 政季의 小鹿嶋 안착<br>· 忠季 시대의 번영 |

| | | | |
|---|---|---|---|
| | | 三守護체제의 성립과 夷狄의 봉기 | · 下之國, 松前, 上之國의 지배 체제<br>· 1457년, 夷狄의 봉기와 信廣의 활약 |
| | | 信廣의 蠣崎 가독 승계 | · 信廣의 蠣崎 가독 승계와 혈맥 |
| | | 洲崎之舘 毘舍門당의 유래 | · 1463년, 光物의 출현과 毘舍門天王像의 발견<br>· 御堂의 건립 |
| | | 信廣의 서거 | · 信廣의 치세(1456-1494년)<br>· 信廣의 법명 |
| | 光廣 | 下國恒季 추토와 탁선 | · 1496년, 檜山屋形의 下國恒季 추토<br>· 恒季 영혼의 탁선 |
| | | 夷賊의 봉기와 宇須岸의 옛 풍경 | · 1512년, 夷賊의 봉기와 宇須岸, 志濃里, 與倉前의 함락<br>· 宇須岸 전성기 시절의 풍경<br>· 隨岸寺 승려들에 얽힌 영험담, 枝藥堂 緣起 |
| | | 夷狄의 봉기 | · 1513년, 夷狄의 봉기와 松前大舘의 함락 |
| | | 光廣, 良廣 父子의 松前 이주 | · 1514년, 光廣, 良廣 父子의 松前 이주<br>· 狄之嶋 守護에 대한 檜山屋形의 인정 |
| | | 夷賊徒의 봉기와 夷塚 | · 1515년, 夷賊徒의 봉기와 계략을 통한 진압<br>· 夷塚의 유래와 영험담 |
| | | 松前 辨才天 緣起 | · 光廣, 松前 앞바다 小島에 辨才天을 勸請 |
| | | 光廣의 서거 | · 松前大舘에 八幡宮 건립<br>· 치세 1494-1518년 |
| | 良廣 | 良廣의 狄 퇴치 | · 1528년, 狄의 침입과 良廣의 퇴치 |
| | | 良廣의 狄 격퇴 | · 1529년, 계략을 이용하여 狄을 격퇴 |
| | | 良廣의 狄 퇴치 | · 1531년, 松前大舘에 잠입 시도하는 狄을 격퇴<br>· 良廣의 자질과 秘術 |
| | | 蛇(蛇)의 사살과 영험담 | · 1534년, 뱀의 사살 후 명중되지 않는 활 |
| | | 狄 추장 부부의 주살 | · 계략을 통한 狄 추장 부부의 주살과 국내 안정 |
| | | 勝軍地藏大菩薩 緣起 | · 勝軍地藏大菩薩의 영험 |
| | | 良廣의 서거 | · 치세 1518-1545년<br>· 良廣시대 法幢寺의 주지는 若州人 |
| | 季廣 | 季廣의 母系 | · 季廣의 모친은 穩內舘主의 손녀 |
| | | 飛驒季定의 모반과 季廣의 활약 | · 檜山屋形의 군사동원명령에 따라 渡海<br>· 季廣의 활약과 모반 진압 |
| | | 若州屋形과의 文通 | · 1548년, 若州屋形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信廣의 출신을 알리고 信豊, 義統을 상대로 文通 |
| | | 愛岩山大權現 社檀의 건립 | · 別當 快祐法印은 季廣의 從父兄弟 |

| | | | |
|---|---|---|---|
| | | 蠣崎基廣의 음모와 毘舍門天王의 가호 | · 蠣崎基廣, 賢藏坊을 통해 季廣을 調伏 시도<br>· 1548년, 賢藏坊, 上之國 毘舍門堂에서 季廣에게 음모를 고백<br>· 季廣, 基廣을 주살하고 毘舍門天王을 위해 新御堂을 조영 |
| | | 信夫釜의 유래 | · 季廣, 靜林을 통해 장군가 전래의 가마를 획득, 가문의 重寶로 삼음 |
| | | 靑磁花入의 입수 | · 季廣, 湊屋形安日茂季에게 청하여 장군가 물건이었던 靑磁花入를 입수, 重寶로 삼음 |
| | | 東公의 嶋渡 | · 1550년, 檜山屋形安東太舜季의 渡來<br>· 季廣, 安日茂季, 喜庭秀信을 사위로 삼아 家名을 떨침 |
| | | 季廣의 夷狄 정책과 평화 | · 季廣, 夷狄의 환심을 사 神位得意로 불림<br>· 西夷尹, 東夷尹을 정하고 夷狄之商舶往還之法度를 정하여, 年俸의 일부를 두 추장에게 부여함(夷役)<br>· 이적 상선의 下帆, 一禮<br>· 季廣 자손의 번영 |
| | | 季廣의 아들들 | · 舜廣, 元廣, 慶廣, 正廣, 長廣, 定廣, 包廣, 吉廣, 中廣, 守廣, 員廣, 貞廣, |
| | | 季廣의 딸들 | · 14명의 딸들 |
| | | 上之國 城代 南條廣繼 부인(季廣 장녀)의 음모 | · 장녀의 家督 승계 실패와 음모<br>· 丸山某子의 음모 가담과 그 유래<br>· 장녀의 자살과 丸山의 참죄 후의 영험 |
| | | 季廣의 서거 | · 치세 1545-1582년, 慶廣에게 가독 양도<br>· 1595년, 서거 |
| | 書誌 | 新羅之記錄의 의미 | · 新羅之記錄의 정의와 新羅大明神 參詣<br>· 八百座護摩 명단 |
| 하권 | 慶廣 | 慶廣의 유소년기 | · 1560년, 慶廣, 津輕 波岡御所에 보내짐.<br>· 波岡御所는 北畠顯家의 말손 |
| | | 慶廣의 軍忠 | · 1581년, 安東太愛季의 淺利義正 주살과 慶廣의 활약<br>· 河北 千町의 입수 |
| | | 安東氏의 내분과 慶廣의 동향 | · 1586년 봄 이래로 安東氏 내분<br>· 慶廣, 전세의 추이를 살피다 實季를 지지 |
| | | 慶廣의 上洛과 豊臣秀吉 알현 | · 1588년, 慶廣, 實季와 함께 上洛 |

| | | | |
|---|---|---|---|
| | | 慶廣의 連歌와 교양 | · 1589년, 慶廣, 紹巴法橋와 連歌<br>· 胡苴의 유래<br>· 慶廣, 連歌, 手跡을 배움 |
| | | 慶廣의 귀국 | · 1589년 3월 28일, 慶廣 귀국 |
| | | 狄之嶋 통치에 관한 朱印狀 수급 | · 1593년, 慶廣, 名護屋에서 秀吉을 알현<br>· 慶廣, 狄之嶋에서의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권, 夷人에 대한 관할권 등을 상주하여 그에 대한 朱印狀을 획득 |
| | | 慶廣의 家康 알현 | · 1593년 1월 7일, 慶廣, 家康을 알현<br>· 慶廣, 唐衣를 착용 |
| | | 慶廣, 名護屋에서 출발 | · 1593년 1월 8일, 慶廣, 秀吉을 알현 귀국길에 오름 |
| | | 慶廣, 名護屋에서 의 성과를 季廣에게 보고 | · 慶廣, 朱印狀 하사에 대해 季廣에게 보고<br>· 季廣, 慶廣이 보낸 차를 베풀며 크게 기뻐함 |
| | | 慶廣, 紹巴로부터 定家의 묵적을 하사받음 | · 慶廣, 季廣에게 보이고자 紹巴에게 定家의 묵적을 청하여 하사받음 |
| | | 紹巴, 慶廣에게 連歌 新式目을 하사함 | · 紹巴, 慶廣에게 連歌 新式目을 하사<br>· 紹巴, 奥書를 덧붙임 |
| | | 季廣, 慶廣의 치적을 찬양 | · 季廣, 家名을 일본 전역에 드높인 慶廣의 치적을 찬양 |
| | | 朱印狀에 대해 夷狄에게 알림 | · 制札을 세우고 朱印狀의 내용을 狄語로 통역하여 알림 |
| | | 家康 알현과 改姓 | · 1599년, 慶廣, 家康을 알현<br>· 狄之嶋의 繪圖, 北高麗에 대한 정보, 系圖에 대한 문의와 松前으로의 改姓<br>· 1600년, 귀국 |
| | | 傳妙院 서거 | · 1601년, 모친 서거<br>· 저자는 당시 3세였음 |
| | | 1603년의 參勤 | · 慶廣, 伊豆守에 임명 |
| | | 1609년의 參勤 | · 慶廣, 家康의 중재로 宗對馬守의 家老 柳川豊前守와 면담<br>· 伊豆에서 湯治 |
| | | 佐竹 가문과 입양 교섭 | · 佐竹義宣에게 末子 長次郎満広를 보내기로 함 |
| | | 花山院忠長의 유배와 松前 살롱 | · 1609년 봄, 忠長가 狄之嶋에 유배됨<br>· 慶広, 忠長의 유배를 영광으로 인식함<br>· 1612년 봄, 연회를 베풀고 시를 읊음 |

| | | | |
|---|---|---|---|
| | | 善光寺如来堂의 건립과 緣起 | · 東宇諏 入海의 절경<br>· 善光寺如来를 둘러싼 영험담 |
| | | 津軽氏와의 화해 | · 1615년, 慶広, 信平의 환대를 받음<br>· 津軽氏와 불화의 원인들<br>· 1610년의 화해 |
| | | 佐竹氏와의 우호관계 | · 1615년, 慶広, 佐竹義宣의 향응을 받고 우호관계를 다짐 |
| | | 오사카의 진 이후 귀국 | · 1615년, 家康, 秀忠 알현 후 귀국 |
| | | 慶広의 서거와 회상 | · 慶広의 기량과 인물됨<br>· 慶広의 치세(1582-1616)<br>· 1616년, 家康의 죽음과 慶広의 落飾, 죽음 |
| | 嫡女 | 嫡女의 혈맥 | · 嫡女는 蠣崎守広과 혼인 |
| | 嫡男<br>盛広 | 盛広의 모계 | · 盛広의 모친은 村上季儀의 딸 |
| | | 熊野三山 참배 | · 1586년, 盛広, 모친의 명복을 빌고자 三山에 참배 |
| | | 盛広 귀국 | · 敦賀津에서 승선, 무사 귀국<br>· 権現大師의 조력 |
| | | 居館 화재와 문서 소실 | · 1589년, 盛広의 居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역대 주요 문서가 소실 |
| | | 1596년의 参勤 | · 家康 알현<br>· 1597년, 귀국 |
| | | 福山城 조영/이사 | · 1600년, 四神相応之所에 성곽을 구축, 이사 |
| | | 1601년의 参勤 | · 上洛하여 若狭守에 임명됨 |
| | | 盛広의 기량 | · 盛広의 교양과 자질, 무용 |
| | | 1605년의 参勤 | · 秀忠供奉<br>· 有馬에서 湯治 후 귀국 |
| | | 盛広의 죽음 | · 1608년, 盛広 서거<br>· 치세(1600-1607) |
| | 二女 | 二女의 혈맥 | · 喜庭直信, 津軽信建와 연이어 혼인 |
| | 二男<br>忠広 | 1599년의 上洛 | · 부친과 함께 오사카성에서 家康 알현<br>· 1600년 귀국 |
| | | 官途와 봉공 | · 1604년, 隼人正에 보임<br>· 같은 해 겨울, 에도에 거주하며 장군에 봉공 |
| | | 叙位와 領地 | · 1610년, 종5위에 서임됨<br>· 같은 해 1천석의 영지를 하사받음 |
| | | 오사카의 진에서의 활약 | · 1615년, 부상을 입어가며 무공을 떨침 |

| | | | |
|---|---|---|---|
| | | 忠広　기량 | ・忠広의 교양과 기량 |
| | | 慶広의 죽음과 忠広의 귀국 | ・1616년, 忠広, 부친 위독 소식을 듣고 귀국<br>・1617년, 부친을 그리며 노래를 읊음 |
| | | 忠広의 죽음 | ・1617년, 장군 봉공 도중에 죽음 |
| | | 綱切貞宗의 유전과 처분 | ・信長의 綱切貞宗, 南部季賢를 거쳐 安東愛季에게 전달<br>・慶広, 浅利義正 추토의 공로로 綱切貞宗를 하사받음<br>・1610년, 慶広, 忠広에게 綱切貞宗를 양여함<br>・忠広의 아들　直広, 생활고로 인해 綱切貞宗를 처분함 |
| | 三男<br>利広 | 利広의 음모 | ・利広, 음모가 드러나 1618년 渡海牢人이 됨<br>・慶広, 公広 2대에 걸친 定広의 충성 |
| | 四男<br>由広 | 由広의 혈맥과 원한 | ・由広, 盛広의 양자가 되었다가 公広의 출생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고 원한을 품게 됨 |
| | | 由広의 기량 | ・由広는 다방면에　器用<br>・1612년,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高野山에 참배<br>・慶広, 由広와 절연함 |
| | | 由広의 죽음과 사당 건립 | ・1613년, 慶広・公広, 由広의 若党를 처단함<br>・1614년, 由広, 小林良勝를 처단, 이후 자살함<br>・1618년, 由広의 영혼이 빙의하여 雷天荒神을 칭함. 이에 祠를 세움 |
| | 五男 | 次広의 요절 | ・1606년, 次広 죽음 |
| | 公広 | 1613-14년의 参勤 | ・志摩守 임명, 国政을 하사받음<br>・1614년 귀국 |
| | | 1617년의 参勤 | ・金山의 運上을 반납받음<br>・재력을 바탕으로 가문의 重宝로 삼을 만한 기물 수집 |
| | | 1623년의 봉공 | ・장군의 上洛 시에 봉공<br>・때때로 와카를 읊음 |
| | | 전염병의 창궐과 阿弥陀如来의 영험 | ・1624년 초여름, 痘疹이 발생하여 아이들이 다수 죽음<br>・일족 가운데는 公広의 嫡男 兼広, 長次郎満広가 죽음<br>・이 시기에 浄土宗　正行寺의 阿弥陀如来가 땀을 흘리는 이적이 나타남 |
| | | 八幡大菩薩의 遷宮 | ・1625년, 大舘의 八幡大菩薩를 福山城 북방으로 옮김 |
| | | 大鷹의 진상과 熊野山과의 인연 | ・1625년, 大鷹를 장군에게 진상. 이는 八幡大菩薩의 賜임<br>・季広 시대에 奥狄이 가져온 八幡符之鷲之真羽를 熊野山에 봉납한 바 있음. 이에 1631년, 熊野別当가 公広에게 札巻数를 바침 |

| | | | |
|---|---|---|---|
| | | 1631년의 參勤과 秀忠의 죽음 | · 1631년 겨울, 參勤<br>· 1632년, 秀忠 서거, 귀국<br>· 公広, 一色의 白鷹는 불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언. 公広는 1630년 一色의 大鷹를 진상한 바 있음 |
| | | 上使의 狄之嶋 시찰 | · 1634년, 家光, 上使를 파견하여 전국을 시찰하게 함<br>· 狄之嶋에 온 자들은 潮泊에서 茂内에 이르는 지역을 돌아봄 |
| | | 1634년의 參勤 | · 1634년 겨울, 參勤<br>· 御黒印과 伝馬의 御判을 하사받음<br>· 1635년, 귀국 |
| | | 모친 서거 | · 1636년 參勤에 즈음하여 모친이 서거. 參勤은 중단 |
| | | 福山城 소실 | · 1637년, 福山城 화재에 휩싸임<br>· 町奉行酒井伊兵衛尉広種,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군인 公広를 구원함<br>· 信広 이래의 鎧, 良広의 弓, 系図 등이 모두 소실 |
| | | 1638년의 參勤 | · 二男 氏広, 처음으로 參勤<br>· 1639년, 公広 귀국 |
| | | 公広의 발병 | · 1640년, 公広, 병상에 누움 |
| | | 해일의 발생과 반야경의 영험 | · 1640년 6월 13일, 해일 발생<br>· 善光寺如来堂은 무탈<br>· 公広, 八幡宮에서 般若経을 독송하도록 하여 효과를 거둠 |
| | | 公広의 죽음 | · 1641년, 公広, 44세의 나이로 서거<br>· 치세(1614-1641) |
| | 六男 景広 | 景広의 혈맥과 夢想 | · 景広의 모친은 利仁将軍 후손인 斉藤実繁의 딸. 観音大菩薩에 관한 태몽을 꿈<br>· 慶広, 꿈속에서 河野加賀守政通로부터 景広를 河野家의 후계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들음 |
| | | 가문 相伝의 무구들과 영험 | · 景広, 1623년 3월 3일 밤, 꿈속에서 狭衣라는 이름의 칼을 입수함<br>· 이해에 嫡男 宣広 출생<br>· 1639년, 河野加賀守政通의 칼을 입수함<br>· 1641년, 公広의 嫡女와 宣広의 혼인 시에 위의 칼을 狭衣라 명명하여 宣広에게 양여함<br>· 信広, 良広가 사용한 무구를 구하여 広惟에게 전함 |

| | | | |
|---|---|---|---|
| | | 거대한 獺虎 가죽 | · 1615년, 東隅의 夷가 거대한 獺虎 가죽을 가져옴<br>· 慶広, 이 가죽을 家康에게 진상함 |
| | | 景広, 高野山참배 | · 1625년, 景広, 모친의 명복을 빌고자 高野山에 참배하고 경전들을 기진함 |
| | | 稲荷大明神 社檀의 조영과 勧請 | · 1638년, 景広, 町舘의 稲荷大明神의 社檀을 재흥, 조영하고, 大明神의 御垂躰를 勧請함 |
| | | 新羅大明神의 宝殿 건립 | · 新羅大明神의 宝殿을 건립하고 遷宮함 |
| | 七男 安広 | 安広의 혈맥 | · 安広는 景広와 동복 형제<br>· 安広, 由広의 가문을 승계함 |
| | | 가문 相伝의 무구와 安広 | · 安広, 小螺丸友次의 칼, 兼光의 中脇差를 소지하게 됨 |
| | | 領地 하사 | · 1623년 봄, 安広, 센다이로 가서 2천석의 영지를 하사받음 |
| | | 安広의 혼인 | · 安広, 1630년, 政宗의 명령에 따라 片倉小十郎의 사위가 됨 |
| | 新羅大明神에 대한 신앙 | 新羅大明神 尊像 건립과 本地 | · 1644년, 景廣의 嫡男 宣廣, 교토에서 新羅大明神의 존상을 모시고 출발, 무사히 귀국함<br>· 新羅大明神의 本地는 文殊吉祥大菩薩. 문무의 겸비 |
| | | 新羅大明神에 대한 景廣의 신앙 | · 古文眞寶 韓文公廟碑文<br>· 新羅大明神 勧請의 의의 |
| | 氏廣 | 氏廣의 혈맥 | · 氏廣은 公廣의 이남. 舍兄 兼廣의 요절로 인해 가독을 승계 |
| | | 1641년의 參勤 | · 1641년 겨울 參勤. 동생 泰廣은 에도에 머무름 |
| | | 新羅之記錄의 성립과정 | · 1643년, 막부의 계도 제출 명령<br>· 1643년 제출본의 문제점과 새로운 계도의 작성<br>· 1646년, 慶廣, 新羅大明神에 참배하고, 계도를 정서하게 함 |
| | 書誌 | 新羅之記錄의 의미 | · 新羅之記錄의 정의와 新羅大明神 參詣<br>· 八百座護摩 명단 |
| | 後筆 | 河野家의 혈맥 | · 河野家는 중국의 왕족 출신 |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新羅之記錄』

2. 논문

入間田宣夫, 「糠部・閉伊・夷が島の海民集団と諸大名」, 『北の内海世界』, 山川出版社, 1999, p.58.
入間田宣夫, 「北方海域の戰國史」, 『北の平泉、南の琉球』, 中央公論新社, 2002, pp.146-162.
入間田宣夫, 「中世奥羽における系譜認識の形成と在地社會」, 『境界のアイデンティティ』, 岩田書院, 2008, pp.92-106.
大庭幸生, 「『新羅之記錄』寫本の系統とその比較」, 『北海道立文書館研究紀要』 2, 1987, p.57.
工藤大輔, 「『新羅之記錄』における「夷」「狄」表記について」, 『中央史學』 19, 1996, pp.38-71.
工藤大輔, 「下國氏と松前氏: 系譜編纂における一つの可能性」, 『中央大學大學院研究年報(文學研究科篇)』 26, 1997, pp.89-99.
工藤大輔, 「アイヌ民族との戰いと「北の武士団」」, 『北方社會史の視座 歷史・文化・生活 第1卷』, 清文堂, 2007, p.44.
工藤大輔, 「松前廣長と『新羅之記錄』『福山秘府』」, 『近世日本の言說と「知」: 地域社會の変容をめぐる思想と意識』, 清文堂, 2013, pp.10-42.
小宮木代良, 「近世前期領主權力の系譜認識: 寛永諸家系図伝の作成過程から」, 『境界のアイデンティティ』, 岩田書院, 2008, pp.55-79.
須藤隆仙, 「松前景廣 本道初の史書を編纂した信心家」, 『北海道と宗教人』, 教學研究會, 1965, pp.67-69.
谷本晃久, 「近世の蝦夷」, 『岩波講座 日本歷史 第13卷 近世4』, 岩波書店, 2015, pp.69-102.

3. 단행본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제국과 변경』, 혜안, 2017.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2004.

H.チースリク編, 岡本良知 譯, 『北方探檢記: 元和年間に於ける外國人の蝦夷報告書』, 吉川弘文館, 1962.
榎森進, 『アイヌ民族の歷史』, 草風館, 2007.
海保嶺夫, 『幕藩制國家と北海道』, 三一書房, 1978.
海保嶺夫, 『近世蝦夷地成立史の硏究』, 三一書房, 1984.
菊池勇夫, 『蝦夷島と北方世界』, 吉川弘文館, 2003.
木村裕俊, 『新羅之記錄【現代語譯】』, 無明舍出版, 2013.
佐伯眞一, 『戰場の精神史: 武士道という幻影』, NHK出版, 2004.
新藤透, 『松前景廣『新羅之記錄』の史料的硏究』, 思文閣出版, 2009.
新藤透, 『北海道戰國史と松前氏』, 洋泉社, 2016.
高倉新一郎, 『北海道史の歷史: 主要文獻とその著者たち(改訂版)』, みやま書房, 1964.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이름: 이세연
소속: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95, 107-1104(홍은동, 벽산아파트)
전화번호: 010-4339-3972
전자우편: seyoenee@hanmail.net

[Abstract]

## *Shillanokiroku,* A Chronicle of Northern Frontier in Early Modern Japan

Lee, Se-Yun

This paper examines the mentality of the *Matsumae*(松前) family who ruled northern frontier of the Japanese archipelago in the early modern age by analyzing the *Shillanokiroku*(新羅之記録).

As the title of *Shillanokiroku* symbolizes, the people of the *Matsumae* family emphasized the bloodline associated with the Emperor as the basis of their ruling legitimacy. However, *Matsumae* family did not ignore the genealogy inherent in the northern world. For example, in *Shillanokiroku Takeda Nobuhiro*(武田信広), a direct ancestor of the *Matsumae* family, was established as the son-in-law of the Ando(安東) family, the hegemon of northern world in medieval Japan.

As can be seen from the discourse on the bloodline, the *Matsumae* family had compound ey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Matsumae* family, the world of civilization was spread across the *Tsugaru*(津軽) Strait, and the world of barbarism was spreading backward. Japan, in a narrow sense, was a world of civilization and a target of longing. On the other hand, *Ezo*(夷狄) was perceived as a companion against dangerous coexistence.

*Kyubanomichi*(弓馬之道) *or Bushido* of *Matsumae* family was of a nature to prioritize pragmatism and survival. The deceptive tactics used in the battle with *Ezo* was recorded abandonedly, and the wait-and-see policy of *Matsumae* family in battlefield was justified in the name of *Kyubanomichi*.

Key words: *Shillanokiroku*, *Matsumae* family, Noble offspring, Marginal man, *Kyubanomichi*